



“미역 말리기는 정성이죠” 6일 완도군 여서도 여서항 선착장에서 어민이 채취한 자연산 미역을 햇볕에 말리고 있다. /완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라돈 침대’ 318건 미회수

도, 비닐커버 무상 공급
광주도 피해신고 40여건

전남지역에서 라돈 검출 침대 피해건 수가 343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5건은 수거했고, 나머지 318건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YWCA소비자 상담실, 광주전남소비자 시민모임 등에도 피해신고가 40여건 접수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는 ‘그린웰스 2’ 등 총 21개 모델이다. 전국에 판매된 침대는 8만 7000여점으로 이중 2000여점은 전남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소비생활센터, 한국부인회 순천·여수지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나주지회, 여수YMCA, 목포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를 통해 모두 343건의 피해 상

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5건의 제품은 대전침대에 서 수거를 완료했다. 나머지 318건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민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 개별보관용 비닐커버를 무상으로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비닐커버를 신청하면 택배업체를 통해 즉시 공급할 방침이다.

비닐커버 공급을 바라는 도민은 보관하고 있는 매트리스 규격을 확인해 전남도소비생활센터(061-286-4170-1)로 전화하거나 전남도소비물가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소비자 시민모임 20건, 광주YWCA소비자 상담실에도 20여건에 달하는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캠퍼스 떠돌이 개 활보...대학생들 ‘공포’

유기견 무리에게 쫓기고 개 피해 달아나다 다치기도
광주지역 대학 곳곳 불안 속 대학측은 미온적 대처

#1. 전남대학교 학생 A(여)씨는 지난달 30일 캠퍼스에서 덩치가 큰 백구(하얀개) 무리에 쫓기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학과 동기들과 조별과제를 한 뒤 학과실을 나서다 자연대 인근에서 백구 한 마리와 마주쳤다.

잠시 경계를 하던 백구는 어느 새 두 마리로 늘었고, 겁에 질린 A씨는 뒷걸음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백구들이 갑자기 맹렬하게 쫓으며 달려들었다. 쫓기던 A씨는 공대 7호관을 향해 달아나다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고, 가까스로 위험을 모면했다. A씨는 “아직도 그날 백구의 살기 어린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겪은 학생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2.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사는 김순영(여·56)씨도 얼마 전 오싷한 경험을 했다. 광주여자대학교 잔디운동장을 산책하던 중 덩치 큰 개 2마리와 마주친 것이다. 김씨는 “개들이 다가 오자 너무 무서워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개를 피하기 위해 뛰어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등에 큰 상처까지 입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광주지역 대학교내에 중·대형견들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학생과 인근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대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밤에 큰 개와 마주쳐 무서웠다”, “개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는 등의 게시글과 답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과거 유기견 포획에 나섰던 소광사에서 단순 포획 등 동물 관련 민원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탓에 현재로선 대학측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떠돌이 개를 제압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학측은 개 “몇마리 가지고 그리느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6일 광주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 10마리, 조선대 4마리, 광주여대 2마리 등 개들이 무리를 지어 대학교 주변을 떠돌고 있다.

“전남대학교 대나무 숲”, “조선대 대신전해드립니다” 등 대학교 페이스북 게시판에 교내를 무리지어 떠도는 유기견의 주인을 찾는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교내를 떠돌아 다니는 개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떠돌이 개들이 주택가에 비해 숲이 우거지고 야산과 인접해 은신처가 많은 캠퍼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먹다 버린



전남대에서 배회하는 개. <전대신문 제공>

음식물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도 떠돌이 개들이 교내로 몰려드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떠돌이 개들이 교내에서 단순히 먹이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야생성이 강한 탓에 어금니를 드러내며 사람을 위협하는 등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데 있다. 특히 사람과 거리를 두는 떠돌이 개의 특성상 자칫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 같은 우려가 있지만 학교측은 떠돌이 개 관련 학생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거나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등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전남대학교가 최근 대학본부 뒤쪽 야산에 포획틀과 포획망울 1개씩을 설치해 1m 이상 크기의 성견 1마리, 새끼 4마리를 잡은 게 전부다.

이를 비롯듯 여전히 큰 개들이 전남대학교 캠퍼스 안을 누비고 있으며, 조선대와 광주여대에서도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개들이 목격되고 있다.

지난 5일 전남대학교 대나무 숲 페이스 북 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학생은 “최근 학교 안에 포획틀과 포획망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인문대 쪽에는 여전히 큰 개가 있었다”면서 “학생 안전이 걱정된다면 학교 측에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기세 전남대학교 총무과장은 “지난 3월 유기견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순직한 충남 아산 소방관 참사 이후 119에서 주민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유기견에 대해선 포획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떠돌이개 포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방서측과 다시 협의해 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소방본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포획한 유기견은 428마리에 달한다. 1월 80마리, 2월 82마리, 3월 114마리, 4월 86마리, 5월 66마리 순이었다. 1월부터 5월까지 구조된 동물 수는 735마리로 이중 유기견이 전체 동물의 58.2%에 달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학원 여강사가 초등생 제자 2명과 성관계”

중학교 진학후 사실 밝혀
경기북부경찰 입건 수사

학원 여강사가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과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바로잡습니다
광주일보 2018년 6월 6일자 6면 ‘광주 봉주초 수학여행 버스, 레미콘 트럭과 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목과 본문 ‘봉주초’는 ‘조봉초’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술 취해 성폭행 당하는 친구 방조한 10대 징역형



○법원이 술에 취한 친구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자리를 비켜주는 등 방조한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인 가해자 3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 A양을 차례로 성폭행했으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B양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는 것.

○B양은 결국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

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A양을 성폭행한 C군과 D군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E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C군 등이 피해자 A양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B양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이 용이하게 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 B양도 친구에게 몸을 짓눌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